

전승공예대전 불교소재작품 다수 입상

문체부장관상 '목각수월관음도목판' 특별상 '천부도' 등

제20회 전승공예대전(전통공예문화상품대전)에서 불교소재 작품이 다수 입상했다. 지난 15일 수상자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승공예대전에서는 조정훈씨가 '목각 수월관음도 목판'(사진)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영예를 안았다. 또 특별상에 '천부도'의 이영란, 장려상에 '관세음보살 보존

품도'의 고영을, 입상에 '반야심경'의 김영규 '수월관음도인출본'의 조정훈 '연화도문갑'의 배금룡 '자수 관세음보살상'의 박노원 '사천왕상' '보살도'의 조석인씨가 수상했다.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9개 전승공예분야에 일반공예가 2백74명이 총 3

백이점이 출품됐다. 이번 행사의 수상작은 학계 및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심사한 것으로, 조정훈씨의 '목각 수월관음도목판'에 대해 '관목에 양각으로 조각한 작품으로 조각수법이 정밀하고 대칭구조의 조화미를 갖추고 있어 목판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 제20회 전승공예대전은 예년과는 달리 한국적인 문화상품을 개발, 발전시켜 세계화 하는 계기로 삼고자 전통공예문화상품 공모전과 동시에 개최됐다. 이는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공예에 창작성을 가미, 현대생활에 접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화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승공예대전의 입상·입선작 전시는 오는 10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경복궁내 한국전통공예미술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전시된다.

도필선 기사

"불모지에 가까운 목각을 하느라 외롭고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20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목각 수월관음도목판'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조

인터뷰 문체부장관상 조정훈씨

"목판 인식전환 계기 됐으면"

조정훈(39). 조씨에게 있어서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상의 기쁨보다 이를 계기로 목판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대중화에 일조해 불교기록문화를 비롯한 불교예술분야에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원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복원·재현, 금강경탑 재현, 대동여지도 복원 하는 등 전통을 계승하면서 불교의 현대화에 앞장서 왔던 조씨는 "서각은 그나마 보존돼 있는 편이지만 목각은 그렇지 못하죠. 그



도목판'은 꼬박 4개월이 걸렸다. 4개월 동안 그는 한순간도 작품에서 떠나 본적이 없다. 장인인생을 살아온 그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관음보살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화엄80변상도, 부모은중경, 심우도, 석가팔상도, 관음보살 32현 등도 목각할 계획입니다.' <필>



심장병 어린이 돕기 '佛音잔치'

불교사회봉사회 자선음악회 오는 30일 호암아트홀

불교사회봉사회(법주 중원스님)가 주최하는 제4회 심장병 및 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가 오는 30일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불교방송 합창단(지휘 김동환) 청룡마야합창단(지휘 정옥녀)과 정은숙, 양은희, 강태복, 김현숙, 김신자, 신영호, 최조웅, 김성길, 성기훈씨들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번 무대에서 공연될 곡목은

'반야심경' '비구니' '장안사' 등 불교가곡과 '한오백년' 등 민요, '보리밭' '산고' 등 가곡과 오페라곡들 다양하다. 이번 음악회에서 모금된 후원은 박광현(2세)군을 심장병·백혈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쓰여진다. 어린이 1인당 수술비는 2백~3백만원이 필요하다. 불교사회봉사회의 자선음악회에는 강태복, 김현숙, 김신자, 신영호, 김성길, 성기훈씨들이 매년 동참하고 있다.

"그간 이 자선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올해도 보다 더 알찬 무대를 만들었다"는 중원스님은 "불교계에서 이렇게 내실있는 음악회도 흔치 않은 만큼 많은 불자들의 성원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 대거 출연 불교방송·청룡 마야합창단 공연

통일신라때 당간지주 청도 장연사지서 발견

경북 청도군 장연리 장연사지(長淵寺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최근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당간지주는 부러진

돌기둥으로 아랫부분은 보물 제677호로 지정된 장연사지 3층석탑 남쪽 10m지점에서, 부러져 나간 윗부분은 장연리의 재실(齋室)인 구연정에서 각각 발견됐다. 현재 도문화재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한 청도군은 "장연사지 3층석탑이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됐고 특이한 조각들이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환수추진위 구성 원주문화원, 서명운동 전개

원주문화원(원장 박형진)은 이달중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현모암당 원주지역 불교문화재 7점을 되찾아 오기 위해 지역 문화재전문가 사·도위원 향토사학자 각계인사 등 80여명으로 문화재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위원장 박형진)는 이달중

조각으로 보는 '불화속 불보살'

이진형씨 첫 개인전... 내달 4~10일 공평아트센터

30여년간 전통불교조각에 몰두해 온 이진형씨(문화재 조각수리기능인 680호)가 첫 개인전을 갖는다. 10월4일부터 10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씨가 3년동안 준비해 온 30여점이 선보인다. 작품의 수는 1백점이 넘는다고. '부처님과 33조사' '18나한상' 등 한 작품에 동원된 조각품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미더가 넘는 대작까지 다양하다. "불교조각을 신앙의 대상이라 측면에서 너무 경직되게 조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존엄한 신앙성과 작가의 창작의지가 담긴 새로운 조형적 이해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3년간의 준비끝에 마련된 이 전시회를 이씨는 "내게 있어 새로운 조각세계로 다가서는 하

나의 관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천수(조각) 김의식(회화)씨에 이어 전통불교미술인으로서는 3번째로 개인전을 갖는 이씨는 불미전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련장학회 기금마련 서화 1백여점 전시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 기

'불화 그리기' 강좌 조계사·한겨레문화센터

불화그리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조계사 문화강좌와 한겨레문화센터에 불화그리기 강좌가 개설됐다. 불화의 이론과 실기를 중심으로하는 조계사 문화강좌의 불화그리기는 10월2일부터 3개

월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720-1390). 지도는 불미전 정경삼과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의식씨가 맡는다. 한겨레문화센터의 우리붓그림강좌는 그림마을 출신 대표인 김봉준씨가 지도하며 불화, 민화, 풍속화를 함께 다룬다. 지난 14일부터 문을 열었으나 신규회원을 계속 모집한다(3272-7575).



이진형씨의 '열반상'. 은행나무를 소재로 부처님 열반 때의 상황을 묘사했다.

불심시집 <32>

가고 쉬지 않는 불

一波寒源清且幽 (일파한원청차유) 한 줄기 새날한 물 맑고도 깊숙해
環山橫野等閑流 (환산형야등한류) 산 돌고 돌 뚝어 한가로이 흐르네
涓涓自得朝宗勢 (견연자득조종세) 줄줄이득조종세
從古至今逝不休 (종고유금시불휴)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고 멈춤 모르다

이 시는 보응당 영허(普應堂 映虛 1541~1609)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문집으로 영허집이 전해지고 있고 문집에 54편의 시가 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많은 분량이 아니니 앞으로 시의 주조가 속기를 여인 그야말로 망기(望機)의 정취로 일관되어 있다. 뒷 시도 그러한 정취가 넘쳐나는 시라 하겠다. 제목은 흐르는 물이라 했으나 물을 읊었다 하기보다도 자신의 걸음을 읊었다 해도 무방하겠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신을 물에다 기탁해도대도 지나침이 없다. 막힌 산이면 물러가고 뚫린 들이면 바로 질러가는 것이 물의 속성이 다. 어느 곳으로 흐르더라도 궁극에는 바다를 조종으로 삼는 것이 또한 물의 속성이 다. 그러한 물의 흐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스님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물의 흐름과 유사함이 아닌가. 속세이든 세상 밖이든 어디에도 막힘이나 집착이 없이 편안이라는 진리의 세계, 해탈의 세계가 궁극의 바

•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및 법문 모음집 •

깨침의 노래

한권의 책으로 수많은 고승들과 만난다!!

- 총 380여수의 '깨침의 노래' 국내 최초 출간!!
-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법문을 총망라한 '깨침의 노래' 불교계 최초 출간!!
- 개인·단체·학교·사찰 단위로 단체 주문 혜택!!
-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읊은 큰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큰스님들의 행장을 알려주는 법문 등을 편자 권성규님이 전국 사찰을 수십 년간 순례하여 모은 380여수의 주옥같은 노래!!
-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책!!

『깨침의 노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씻겨주는 청량제!!

◎ 연속 재판 !! 절친리 판매중 !!
10부 이상 법보시를 원하시는 스님·불자·일반인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가의 10%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95 불교 출판계 스테디셀러!!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열반송·법문등을 소장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개정 보충판에 수록되었습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전화 : (02) 725-6922~4
팩스 : (02) 725-6920

불사건립 안내

본인은 95. 8. 13 "포교원"을 개원 활동중이며 95년 10월 중 조그만 불사를 건립기 위해 추진중이오니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 불사건립계획
 - 입지확보 : 95. 9. 30
 - 건립/준공 : 95. 10. 16~11. 30
 - 낙성식/점안일정 : 95. 12. 3 (9. 11)
 -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2리 두류산 절골터
 - 건립위원장 : 법장사 송월스님
- 연락처
(02)467-4888 / (011)368-1497
(0363)441-6260(법장사) / (0363)441-3125
- 동참금 입금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주택	446025-95-104785	조운호
축협	041-12-15300-316	조운호
신탁(서울)	31007-0172900	조운호

대한불교 칠성포교원
법사 조운호 합장
(전화 : 02-497-5311)

금강경 강의 및 관법수행지도

강의일시
10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유마선원 법당

설법지도
이제열 법사 (유마선원장)

문의신청
597-9129, 582-0565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이만용
나이: 73세
특징: 이마에 흉터

건망증이 심함
상기 분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람 후사함

연락처 : 051-255-1151

공장 부지 급매

위치 화성군 남양면 소재
평수 약 4천평 정도

연락처 0339-356-8383~5
011-278-0469